“장애인들 희망의 캔버스에 용기를 색칠해주고 싶어요”

화가로 변신한 곽정숙 전 민노당 국회의원
암 투병 중 그린 수채화로 첫 개인전
“판매액 일부 사회적 약자들 위해 쓰겠다”

곽정숙씨가 20일 광주시 서구 지노갤러리에 전시된 자신의 작품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그림을 통해 힘들게 희망과 꿈을 좇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싶어요.”

20일 곽정숙(55)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첫 개인전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지노갤러리에서 ‘꿈 꾸는 강’을 주제로 그동안 작업했던 작품 23점을 선보였다. 작품 판매액 일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쓸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과정을 자유롭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이런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18대 의정활동을 마친 지난 2013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쉬자’는 생각 아래 예전부터 관심있었던 그림을 배웠다.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 붓을 잡아본 그는 동네 미술학원에서 스케치, 데생 등 기초를 시작했고 조선대 평생교육원에서 본격적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곽 전 의원이 그린 그림을 살펴보니 강, 바다, 계곡 등 푸른색의 물을 소재로한 작품들이 많았다.

“평소 물을 좋아해요. 물은 낮은데로만 흐르고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올라가려는 특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밑으로 떨어지는 용기를 내면 오히려 마음의 여유와 힘이 생긴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는 다섯살 때 결핵성 척추병으로 수술을 받은 위 척수장애인이 됐다. 이후 여성 장애인 지원시설인 ‘실로암재활원’에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본격적인 장애인 인권 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20대부터 50대까지 여성장애인 20명과 함께 생활하던 중 어느날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물어봤어요. ‘학교다니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장애인들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정규교육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로 재직하던 2008년 당시 민주노동당으로부터 비례대표직을 제안받았다. 직접 장애인 관련 정책을 개선해보자는 생각에 국회에 입성했다.

의정활동을 마치고 광주로 다시 내려온 그는 그림을 막 배우기 시작하던 2013년 2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는다. 간암 진단 판정을 받은 것이다.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시한부 통보를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치료 과정 틈틈이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추수렸지만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아직 해야할 일이 많았다.

“지난해 같이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다시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 ‘이제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싶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장애인들도 노동의 욕구가 있었죠. 누가 이끌어주는데로 살아온 장애인들에게 남은 시간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어요.”

그는 올해 초부터 장애인 약 10명과 ‘우리들의 행복한 일터’(가칭)라는 사업체를 만들어 SNS 등 온라인 통해 도자기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직접 머그컵 등 제품을 만들고 곽 전 의원이 밑그림을 그려주면 채색을 한 제품이다.

곽 전 의원은 “아직 정식 사업체가 아니지만 자리를 잡으면 작업 공간도 마련하고 정식으로 협동조합 설립과 사업자 등록도 할 계획이다”며 “장애인들이 일터를 통해 행복한 모습을 보길 원하고 매년 개인전도 개최하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춤이다”

광주시립발레단 모던 발레 공연 … 21~22일 문예회관 대극장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신순주)이 모던 발레 공연을 선보인다. 지금까지 시립발레단 공연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웠던 실험적 형식의 공연으로 파격적인 몸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21~2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공연은 두 작품으로 이루어졌다. 1부 ‘불안한 축(Unstable Axis)’은 한국 현대무용을 대표하는 ‘젊은 피’ 김판선 안무가의 작품이다. 김 씨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춤이라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 모든 추상적인 것들,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이브 기타 사운드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현대무용단 LDP 단원 안남근이 시립무용단원과 함께 출연한다.

2부 ‘천학의 비상’은 루마니아 안무가 플로린 브린듀사의 작품으로 강하고 아름다운 테크닉이 돋보이는 무대다. 그리움과 꿈, 연민, 사랑, 갈등, 고뇌, 이별의 감정을 탄탄한 스토리와 춤으로 표현했으며 현대 음악 장르에 한국 전통가락을 덧입힌 최정수 작곡가의 음악도 관심을 모은다. 광주 출신으로 인기프로 ‘댄싱9’ 우승자인 윤전일(전 국립발레단 주역 무용수)씨가 주역으로 출연한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522-87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천학의 비상’

조선 최초 여성 혁명가 ‘고대수’의 꿈과 용기

강진 출신 김미승 시인 ‘세상에 없는 아이’ 펴내

전설과 역사를 모티브로 한 청소년 소설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사실과 허구를 넘나드는 소설은 픽션을 넘어 ‘팩션’(faction)으로 다가온다. 작품 배경이 일정 부분 사실을 토대로 형상화되었다는 점에서 소설은 당대의 사회를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준다.

강진 출신 김미승 시인이 펴낸 ‘세상에 없는 아이’는 19세기 말 삼일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을 다룬다. 정확히 말하면 이 시기에 활약했던 조선 최초의 여성 혁명가 ‘고대수’의 삶을 갑신정변에 겹쳐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 고대수의 원래 이름은 ‘고례’. 19세기 말, 천민으로 태어나 ‘액막이 궁녀’를 지냈던 그녀는 김옥윤(‘김옥균’ 지칭)을 만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부조리한 제도를 깨닫는다.

‘위로부터의 혁명’이었다고 평가받는 갑신정변 속에서 소녀 고례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꿈꾼다. 귀천은 타고난 것이라 규정짓는 신분제도와 전생과 현생을 엮는 운명론에 맞서 싸우지만 그러나 기득권의 틀은 강고하다.

작가는 김옥균이 직접 쓴 갑신정변 기록문 ‘갑신일록(甲申日錄)’의 한 구절에 영감을 얻어 이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고 밝힌다. ‘갑신정변 가담자 중 유일한 여자였던 조선 최초의 여성 혁명가 궁녀 고대수, 그녀는 칠적 장신의 거구로 처형장으로 끌려가던 중 사람들의 돌팔매를 맞고 죽었다’

작가가 42세였던 궁녀 고대수를 14세의 고래를 닮은 아이 ‘고례’로 그리게 된 이유다. 그러나 갑신정변이 삼일천하로 끝났듯, 고례의 꿈도 미완성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나 작가는 “주어진 운명에 무릎 꿇지 않고 진정한 자기를 찾으려 했던 소녀의 이야기는 역사에 묻힌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오늘을 사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꿈꾸었던 세계를 향해 꿋꿋이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한다.

한편 김미승 작가는 1999년 ‘작가세계’에 시로 등단 후 ‘네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익어가는 시간이 환하다’를 펴냈다. 현재는 광주대 문창과 대학원에서 아동문학을 공부하고 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3일 ‘오래된 새로움…’ 학술대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원장 조윤호)이 오는 23일(오전 10시) 전남대학교 G&R Hub 1층 세미나실에서 ‘오래된 새로움, 익숙한 낯섦-한국 감성의 전통과 근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의 근대가 지닌 역사적 특수성을 발견하기 위해 이성의 차원뿐만 아니라, 감성의 차원에서 전통과 근대가 만나고 교차하는 장을 주시한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근대 혹은 근대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인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 등을 논의한다.

총 3부로 구성된 학술대회 1부에서는 박구용(전남대), 김상준(경희대), 김기성(전남대) 교수가 ‘근대의 안과 밖’을 주제로 논의의 문을 연다. 이어 2부에서는 ‘근대의 얼굴들’을 주제로 김경호(전남대), 박민호(한국외대), 김은중(서울대) 교수가 논의를 펼친다. 3부에서는 조정환(다중지성의 정원 대표), 이선옥(전남대), 김남시(이화여대) 교수가 ‘감성적 주체’를 탐색한다.

문의 062-530-0492.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